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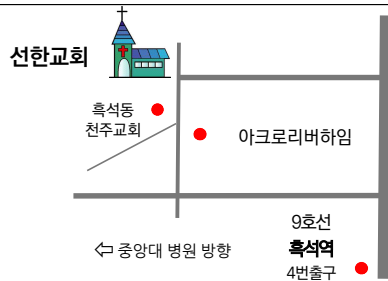
예배 및 모임 시간 안내

주 일 예 배	1부 주일 오전	9:30	부서 예배 및 모임 (주일)			
	2부 주일 오전	11:00				
오 후 예 배	주일 오후	3:30	유 아 부	오전 11:00	남전도회	오후 2:00
	(5째주 셀가족모임)		유 초 등 부	오전 11:00	바 울 회	오후 2:00
중 국 어 예 배	주일 오후	4:00	청 소 년 부	오전 10:00	마리아회	오후 2:00
수 요 예 배	수요일 저녁	7:30	청 년 부	오후 1:00	드보라회	오후 2:00
금 요 기 도 회	금요일 저녁	8:30	영 어 예 배	오후 3:30	에스더회	오후 2:00
새 벽 예 배	월-금요일 새벽	5:30				
	*월삭새벽예배	6:00				
셀 가족 모임	셀별로 정한 시간					

섬기는 분들

사 역 자	담임목사 임 춘 배	국 내 선 교 사	오인숙, 한 배 선, 강 성 규
	교육목사 권 인 혁	해 외 선 교 사	이금춘(김인실), 조나단(강야엘)
	전임전도사 김 진 만	협 력 교 회	기쁨교회 (유성은 목사)
	협력전도사 오 효 남		주의뜰교회 (김대열 목사)
은 퇴 장 로	고 상 돈, 김 대 희		주안예교회 (이정필 목사)
	박 희 태		가슴뛰는교회 (원종선 목사)
장 로	박 영 근 (집사장)	관 리 장 로	손 석 규
	유 신 웅, 조 윤 익	500/50 교회	(1호) 필리핀 Good Church
	조 계 승, 윤 호 중		(2호) 세종 선한교회(신원섭 목사)

선한교회 오시는 방법



버스간선 151, 350, 360, 462,
640, 642, 752(호사정앞 하차)
지선 6411, 5524, 5511, 5517(종점)
광역 9408
마을버스 동작01, 10, 21(중양대병원)

지하철 9호선 흑석역 4번출구 (도보 5분)
7호선 상도역
*5번 출구 하차 후 마을버시아용(동작 01, 10, 21)

06910 서울 동작구 흑석로13마길 1 (흑석동 173-30)

대표전화 (02) 815-6213 FAX (02) 815-6065 홈페이지 <http://www.sunhan.org>

표 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사 6:8)

Here am I, Send me!

실 천 사 항 기도의 삶 거룩 / 사랑의 삶 선교사의 삶

교회에 대하여 : 같은 마음을 품고 동역하자

삶 의 방 식 개인에 대하여 : 주안에서 항상 기뻐하자

(빌 4:1-7) 성도에 대하여 :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보이자

문제에 대하여 :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자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학 2:19)



기 독 교 선한교회
한국침례회

담임목사 임 춘 배

오 전 예 배		오전 11:00	인도자 : 임춘배 목사
기 원		인도자	
찬 양 과 경 배		29장	
교 독 문		교독문 10번 (시편 16편)	
찬 양 과 경 배		499장 (통일찬송가 377장)	
말 씬 봉 독		요한계시록 2장 18 ~ 29절	
설 교		두아디라교회에게 주신 말씀 (임춘배 목사)	
환 영 및 광 고		인도자	
파 송 의 노 래		그렇게 살아가리	
축 도		임춘배 목사	

수 요 예 배		오후 7:30	예배장소 : 본 당	인도자 : 임춘배 목사
만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롬10:1-13) 임춘배 목사				

교회소식

- 예배 중에는 영상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배 10분 전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예배 안내

1. 기간: 2월23(주일)~3월31일(화)
2. 주일예배: 11시 예배만 드림 (가정 영상예배)
※ 홈페이지와 교회공지방 링크
3. 주중예배: 수요일예배와 금요일기도회 드림 (가정 영상예배)

2. 기타안내

1. 출석체크를 위해 가정별로 영상예배 드리는 인증샷을
담임목사님 개인톡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은 교회 계좌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독교한국침례회선한 국민은행 02510104158558

3. 개인경건훈련 안내

1. 가정예배드리기 2. 매일큐티하고 기도하기
3. 성경일독하기 [금주범위: 이사야~말라기] *일독 기념품 증정
4. 경건서적읽기 5. 부서별 카톡 성경공부

4. 코로나19 기도 제목

1. 코로나 19 종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2. 코로나 19 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3. 코로나 19 확진자들의 완치와 빠른 백신 개발을 위해 기도합니다.
4. 중국을 비롯한 모든 나라에 화개와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도록
기도합니다.
5. 코로나 19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도록
기도합니다.
6. 코로나 19를 통해 성도들의 신앙이 더욱 성장하도록 기도합니다.

한주간의 기도제목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인내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인내의 시간을 감사와 기쁨으로 견디는 성도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	--

가정예배	내가 짓는 인생 집
찬송 : ‘주의 말씀 듣고서’ 204장(통 379장)	
본문 : 마태복음 7장 24절~29절	
말씀 : 오늘 본문은 산상설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따라온 무리에게 더 높은 차원의 복과 법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르(려)는 사람과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두 사람의 결과에는 매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차이를 집 짓는 사람에 비유합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커다란 바위에 집을 고정하기 위해서 구멍을 뚫고 기초를 닦는 일련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집의 튼튼함이 드러나는 것은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서 물이 넘치고 거대한 바람이 휘몰아칠 때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은 힘겨웠지만 큰 풍랑 앞에서 곳곳이 견뎌냈을 때는 매우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반면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같습니다. 모래 위에 집은 쉽게 지을 수 있습니다. 기초가 부실하니 굳이 기초를 잘 닦으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집 역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면 그때야 얼마나 부실한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집을 지은 사람을 지켜주지도 못하고 비바람에 무너지고 휩쓸려 날아가 버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기초를 닦고 기둥을 올리고 지붕을 엮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려하게만 지으려고 할 테고 어떤 사람은 드러나지 않지만 묵묵히 튼튼한 집을 지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짓는 집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행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짓는 집과는 다른 종류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집은 얼마나 많이 벌고 올라갔느냐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어떻게 따랐느냐로 평가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때로는 지겹고 힘들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자신을 성찰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사는 것은 더욱이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삶의 위기를 만나면 그동안의 훈련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비바람은 매우 거셉니다. 절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단순히 고난으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장 약한 부분을 치고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흔들어 예수께 내린 기초를 송두리째 뚫으려고 하는 폭풍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산상수훈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만드 들어가시겠다는 단호한 기대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튼튼한 집을 짓기를 소망합니다.	

은혜의 말씀	
제목	두아디라교회에게 주신 말씀 (계2:18-29)
서론	요한계시록은 주님의 초림과 재림사이에 일어날 일들을 기록하였고 소아시아 7교회(모든 세대의 모든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본론	1. 두아디라교회의 상태 (1)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눈이 불꽃같고 그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18절) (2) 주님의 칭찬: ①‘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19절) ②‘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19절) (3) 주님의 책망: ①‘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20절) ②‘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띄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하는도다’(20절) ③‘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21절) (4) 주님의 권면: ①‘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에 던지고’(22) ②‘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③‘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 주리라’(23절) ④‘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때까지 굳게 잡으라’(25절) (5) 주님의 약속: ①‘이기는(내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26절) ②‘새벽별을 주리라’(28절) 2. 교훈 (1)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아야 한다. (2) 거짓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지 말라. (3) 인내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자.
결론	끝까지 승리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에 동참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매일 Q.T.		하나님의 공동체	날짜 : 3월 23일
찬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본문	신명기 1:9~18		
	점차 늘어나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모세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벅찬 상황이 다가왔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각 지파에서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경험이 많은 사람들을 선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선정된 사람들을 지파의 지도자로 세웁니다. 신앙생활에는 독불장군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성을 통해 ‘나’ 를 다듬으시며 성장시켜나가시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탄은 모든 일을 독단적으로 추진해 나가라고 유혹합니다. 타인에 대한 불신속에 자신만을 과신하라고 부추깁니다. 결국 자기 과시라는 허울속에 자신은 물론 이거니와 공동체 전체에 짐을 지우는 이중고를 초래하게 됩니다. 모세의 짐을 나누어 맡게 된 지파의 대표들은 재판의 업무도 담당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정성이었습니다. 본국인과 타국인 사이에 차별을 두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의지해 하나님을 대신해서 재판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른 그리스도인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지 않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잊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대신한다는 청지기 의식이 있습니다.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임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 또한 공정하게 판단합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증인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짐을 나누어 졌던 경험 중에 가장 기억에 남은 일은 무엇입니까? 만약 그런 기억이 없다면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2. 살아오면서 차별했던 사람이 있었다면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만약 주님께서 나와 다른 사람을 공정하게 대하시지 않는다면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오늘의 기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웃을 사랑하게 해 주시고, 늘 말씀을 출발점 삼아 발걸음을 내딛게 해 주십시오. 두렵고 낙심될때마다 더욱 주님의 말씀을 붙들게 해 주시며, 멈춤과 나아감의 균형을 잃지 않게 해 주십시오. 더불어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종임을 잊지 않음으로 주님의 청ziger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증인임을 기억함으로 타인을 공정하게 대하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개인성경공부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찬양과 기도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새 445/통 502)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경배와 찬양)	
묵상 나눔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와 삶에 적용한 말씀들을 나누어 보세요.	
이야기 속으로	빅심리학자 앨버트 밴두라(Albert Bandura)는 실패를 겪을 때 우리의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 주는 다음과 같은 연구를 했습니다. 두 그룹에 똑같은 임무 수행을 맡겼습니다. 첫 번째 그룹에는 임무 수행을 함으로써 참가자 각자의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측정하는 테스트라고 말했고, 두 번째 그룹에는 임무를 완수하는 데 필요한 능력은 배가될 수 있고, 테스트는 훈련하고 성장하는 기회에 불과하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사실 그 임무는 누구든 실패할 수밖에 없도록 아주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참가자들은 모두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두 그룹의 반응은 각기 달랐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참가자들은 자신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에게 다시 테스트를 시행했지만 그들은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 다. 반면 두 번째 그룹은 비록 실패했어도 자신감을 잃지 않았습니 다. 참가자들은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겼고, 다시 테스트했을 때는 향상된 수행 능력을 보였습니다. 나아가면서 실패의 과정은 누구나 겪습니 다. 그러나 실패에 대한 반응은 각기 다릅니 다. 결국 실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실패한 상태에 머무를 수도 있고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에 낙심하지 않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요 재시작의 기회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점점 성숙해져 결국 열매 맺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과거 실패를 통해 새롭게 배우고 성장한 일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말씀 나누기	신명기 1:19~33	
묵상포인트	나를 압도하는 상황과 문제에 당면했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려 한다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두려움에 매몰되면 원망과 거역이 자리 잡기 쉽습니 다. 진정한 믿음은 두려움 가운데서 눈을 들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난날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되새기며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우리는 자격 없지만 측량할 수 없는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습니 다. 그러한 은혜를 베푸신 주님이 오늘도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를 격려하십니 다.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를 위해 친히 싸울 것이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관찰과 묵상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백성에게 어떤 보고를 했고, 백성의 반응은 어떠했 나요?(23~28절)	
적용하기	현실 문제가 하나님보다 커 보여 두려워하고 절망한 때가 있었나요? 그때 어떻게 반응 했는지 나누어 보세요.	
함께 기도하기	문제에 부딪힐 때 상황만 보지 않고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마음이 불안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 지난날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이제도 함께하심을 기억하고 담대하게 하소서.	
나의 기도문		
기도 (중보기도)		

매일 Q.T.		화평을 이루는 자	날짜 : 3월 27일
찬양	찬송가 37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본문	신명기 2:16~25		
	오늘 본문에는 광야 길을 가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조심해야 할 족속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에돔 족속, 모압 족속 그리고 암몬 족속입니다. 이들 족속과는 마찰을 원치 않으셨는데, 그 이유는 이 세 족속들이 이스라엘과 형제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에돔은 이스라엘의 옛 이름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들과의 마찰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을 친히 이끄시지만 아브라함과 이삭의 후손, 나아가 이스라엘의 후손이 복 받고 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에서와 롯에게 이미 하셨던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해 변경하시거나 파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세 족속들과 화평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화평을 이루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어떻게 하면 어느 상황에서든, 어느 형편에서든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까? 우리가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이루기 위해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 자신이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룰 때 우리 안에 가족과 이웃과 화평을 이룰 힘을 공급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먼저 주님과 화평을 이루지 않을 때 우리는 가족을, 이웃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때로는 두려운 존재로 대할 수밖에 없는 세상입니다. 오늘 한 날을 사시면서 주님과 화평을 이루시길 빕니다. 또한 오늘 한 날을 사시면서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주님께 받는 훈련이 우리를 더욱 견고케 하는 훈련이 될 지언정 우리를 절망케 하는 연단이 아니길 소원합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나는 언제 사람들과 화평하게 지낼수 있나요? 2. 그렇게 지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삼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두려움 없는 믿음	날짜 : 3월 24일
찬양	찬송가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뵈어도		
본문	신명기 1:19~33		
	이스라엘 백성은 자신들을 출애굽 시키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배고픈 광야에서 먹이시고, 목마른 자신들의 목을 축여주셨고, 친히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눈으로 목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신장이 장대한 아낙 자손을 본 정탐꾼들의 보고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빠져버린 말소리에 놀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울부짖었습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은 믿음이 결여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요한일서 4장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모압 땅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을 기억하고 그분을 향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라고 간절히 권하고 있습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내가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광야생활 40년 중에서 무슨 일이 가장 견디기 힘들었겠습니까? 2. 하나님을 향한 오늘 나의 불평은 무엇입니까? 3.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최근에 어떤 사건 속에서 만났습니까?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먹어 보고도, 잠시의 두려움 앞에서 자신들이 체험했던 생명의 경험을 모두 던져 버리고, 다시 돌아가겠노라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상기시켰듯이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사오니 오늘 한 날의 삶이 과거를 돌아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믿음으로 담대히 걸어가는 종과 증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열심과 순종 사이	날짜 : 3월 25일
찬양	찬송가 290장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본문	신명기 1:34~46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주님께서 자신들의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자신들의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는 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들을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고,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국한된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듣고 생명의 길을 걷노라 생각은 하지만 여전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집착하느라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있다면, 그분의 말씀을 삶으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앞에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하는 것 같은 중대하고, 중요하고, 긴급한 일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여전히 사탄의 권세에 억눌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매어 있는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으로 담대히 우리 앞에 놓인 가나안을 향해 걸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의 종과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해 이 나라와 사회, 교회와 가정은 회복되어 갈 것이며, 삼 일 만에 살아나신 주님의 생명을 이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갈렙과 여호수아가 담대하게 보고할 수 있었던 동력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내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오늘 하루를 살기 원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두려움이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만이 제 마음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매일 Q.T.		연단의 이유	날짜 : 3월 26일
찬양	찬송가 430장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본문	신명기 2:1~15		
	가나안 땅을 앞두고 방향을 다시 광야로 돌리게 된 이유는 다름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정탐군의 보고를 받고 행했던 불신앙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들으셨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을 것이며, 전쟁을 알지 못하는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친히 출애굽 시키시고, 자신들을 광야에서 목축과 경작과 교역을 통해 풍성한 복을 누리게 하셨음을 두 눈으로 목도하고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인들을 보고, 그들의 땅에서 나는 열매를 하나님보다 더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모두 광야에서 생을 마쳤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끝까지 지켜가지 않으면 우리에게도 38년이라는 훈련과 연단의 시간을 거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반드시 38년이라는 세월을 훈련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38년이란 세월을 이스라엘을 연단하셨듯이 우리 각자에게도 몇 년의 세월이 소요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훈련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묵상을 돕는 질문	1. 이스라엘 백성이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거리를 38년이란 세월동안 방향한 사실을 보고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14절) 2. 나의 삶이 현재 38년의 시간 속에 있다면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의 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주인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땅을 입성하는 주인공이 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했기 때문이요, 자기 자신들의 삶을 객관화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오늘 하루 주님만을 믿고,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더불어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